일상 빛나는 품격 쇼핑…상생 빛나는 지역 동행



호남의 전통상권에 자리잡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호재를 얻어 원도심 부활의 마중물이 될 채비를 마쳤 다.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점 전경.



3개 층에 걸쳐 조성된 '프리미엄 생활 종합관'에서는 가전과 가구, 침구, 실내 장식 소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C17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생활 종합관'·'푸드애비뉴'…MZ세대의 명소로 광주천 가꾸기·전자의 거리 되살리기 등 ESG 경영 앞장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맛집 입점 확대 … 전통상권도 활기

호남·충청권에서 처음 문 연 롯데백화점 광 주점은 개점 이후 24년 동안 광주의 전통상권 을 묵묵히 지켜왔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IMF 외환위기가 닥친 지난 1998년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전국 7번째 롯데백화점으로 들어섰다.

롯데백화점은 50년 역사를 지닌 대인시장과 대인동 전자의 거리 뿐만 아니라 충장로・금남 로를 아우른 동구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

마무리하며 원도심 부활의 마중물로 거듭날 채 비를 마쳤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공격적 투자에 대한 성 과는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이 입증했다.

개선 공사 이후 점포 매출은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11년 만의 개편을 단행한 '푸드애비 뉴' 고객 수는 이전보다 16% 증가했다.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한 쇼핑 공간을 늘린 덕분에 20~30대 MZ 세대 고객 비중도 늘고 있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채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MZ 세대 고객 눈높이에 맞는 판촉을 벌이고 주요고객(VIP)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확대한 다는 방침이다.

◇전통상권 활기 불어넣는 지역상생 행보=롯 데백화점 광주점 직영 인력은 78명으로, 함께 일하는 '동료사원' 800여 명을 합하면 900명이

점포에서 근무하고 있다.

광주점 직원의 절반 가량은 1998년 개점 공 신들이다. 20년 경력을 지닌 롯데백화점 광주 점 사원들은 '내 집 일'처럼 지역 공헌활동에 임 하고 있다.

광주점의 대표적인 ESG 경영 활동 가운데 하나는 '광주천 가꾸기 사업'이다.

임직원들은 '세계 물의 날'과 '지구의 날' '환 경의 날'등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광주천 정화 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시 '시민 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사업' 우수단체로 선정 돼 시장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태풍이 할퀴고 간 광주천 주변 복구에 나서기도

침체에 빠진 '광주 전자의 거리'를 되살리기 위한 협업과 대인시장 환경 개선, 광주 충장축 제 후원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빠질 수

광주 동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간식과 생활용품을 전달 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어린이에게 올바른 손 씻기와 감염병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방역하며 코로나19의 지 역 확산 방지에 힘썼다.

◇7년 만의 새 단장에 'MZ 세대 명소'로=지 난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세계적인 감염병 대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 를 단행했다.

모든 층에 걸친 매장 개편작업을 벌인 것이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대표적인 ESG 경영 활동인 '광주천 가꾸기 사업'



롯데백화점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롯데 봉사단은 지역 아동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 재능기부를 벌이고 있다.



11년 만의 개편작업으로 프리미엄 식품관으로 재탄생한 '푸드애비뉴'에는 지역 맛집들이 대거 둥 지를 텄다.

다. 이 같은 대대적 개선공사는 2014년 이후 7 며 가족 단위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푸드애비뉴'로 거듭난 식품관 개선 작업은 무려 11년 만에 이뤄졌다.

가장 먼저 매장의 얼굴인 1층에 신규 브랜드 를 대거 입점시킨 것이 눈에 띈다.

고객 수요를 반영한 명품 전문관을 구성했으 며, 이달에도 영국 명품 의류 브랜드 '멀버리' 가 새로 소비자를 만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이 들인 명품 브랜드는 개편 이전보다 40% 확 대됐다.

2층에도 다양한 해외 브랜드 매장이 들어서 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유명 스포츠 브랜드 매장을 대폭 넓혀 10대 등 MZ 세대를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을 마

대중 스포츠가 된 골프 수요를 잡기 위한 변 화도 있었다. 이달 문 연 골프용품 전문점에서 는 골프 초보인 '골린이'부터 선수급 경험자까 지 모든 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타실을

유아 휴게실과 아동용품, 아동 전문 서점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 아동•유아 전문관도 들어서

프리미엄 식품관으로 재탄생한 지하 1층 '푸 드애비뉴'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효자 역할을

이곳에는 화순 도곡농협이 매일 직거래로 들 여온 신선한 농산물을 만나는 '로컬푸드 직매 장'이 백화점 업체 최초로 조성됐다.

국내외 유명 식재료를 접할 수 잇는 '글로벌 그로서리 매장'과 '와인 갤러리' 등도 소비자의 깐깐한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지역 유명 맛집의 입점을 기존보다 7배 확대했다.

광주 대표 팥죽 전문점인 '상무팥죽'과 지역 최초 브런치 카페로 꼽히는 '아필코' 등이 대표 적이다.

광주 동구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점포 주변 에 2만여 세대 규모 대단위 주거단지가 조성되 는 호재를 얻어 생활 부문 개선도 단행했다.

가전과 가구, 침구, 실내 장식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생활 종합관'을 조성 한 것이다. 3개 층에 걸친 이 공간은 호남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일호 롯데백화점 광주점장



"동구 상권 부활 위한 마중물 역할하도록 다양한 구상"

올해 1월1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으로 부임 한 전일호(48) 점장은 "광주에서 일해온 석 달 동 안 광주시민의 풍요로운 인심과 매력에 푹 빠졌 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 점장은 롯데아울렛을 포함한 56개 점포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40대 점장' 중 한 명이다.

그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대인동을 포함한 전 통적 광주 동구 상권이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다. MZ 세대의 취향을 이끌며 온 가족이 머무 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복합 문화적 공 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첫 임원 보직을 맡은 전 점장은 롯데에서 손꼽히는 '식품 전문가'

전 점장은 10여 년 전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영국식 빵 '번' 브랜드 매장을 들여와 전 국적으로 흥행시킨 주역이다.

본점에서 시작한 해당 브랜드는 입점 1년 만에 월매출 1억4000만~1억5000만원을 올렸다. 중독 성 강한 맛이 이끌려 매일 200~300명 구매 행렬 이 이어졌고 서울 전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입소 문을 탔다.

감염병 메르스 확산으로 경기 침체 위기를 맞 았던 지난 2015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대규모 기획전을 벌여 하루 최대 40만 고객이 몰리는 흥 행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 점장은 "광주로 일터를 옮기면서 문화와 즐 길 거리를 아우르는 '복합 쇼핑공간'에 대한 지역 민의 수요를 읽었다"며 "오랜 침체기를 맞고 있는

원도심이 부활할 수 있도록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변화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모든 층에 걸친 매장 개편작업을 7 년 만에 단행하면서 동구 대인동과 충장・금남로 를 에워싼 고객 맞을 채비를 마쳤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소비가 위축될 때 우리 점포가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건 원도심의 가능 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점포가 위치한 광주 동구 23개 지역에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 만여 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신규 입주민이 머무 를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만드는 게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달에는 영국의 명품 브랜드인 '멀버리'를 들이고 시타실을 갖춘 골프용품 전문점 '퍼플핀'을 입점시키며 MZ 세

대 소비 욕구를 반영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스포츠 매장을 대거 확충하는 등 점포 각 층마다 연령별 수요를 만족시킬 내용물 을 보강하기도 했다.

광주 출신 신입사원 4명을 포함한 20~30대 직 원들과 소통을 늘린 결과, 롯데백화점 광주점만 의 대표 명소를 만들 방안도 마련됐다.

"우리 점포 MZ 세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 으로 들어보니 화장실 하나도 광주점을 대표할 수 있는 '시그니처'가 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같은 생각들을 반영해 3개 층에 걸친 '프리미엄 생활 종합관'에서 가족 단위 고객 휴식 공간을 마 련하고 5층에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설치해 고객 의 눈을 즐겁게 할 방침입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올해도 '광주천 가꾸기' 와 주변 상권과 연계한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강 화하며 ESG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글=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